



SURVEY REPORT · 2026

성소수자 정당정치 참여 및 권리보장을 위한 설문조사

요약 보고서

설문기간 | 2026.2.1-2026.2.22
자문 | 민주연구원 류이현 연구위원
주관 | 프라이드온더파티
후원 | (재)다음세대재단
문의 | prideontheparty@gmail.com

CONTENTS

목차

요약	3
당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5
1. 가입 정당	6
2. 정당 가입 고려 단계	8
3. 입당 신청 단계	13
4. 정당 활동	14
5. 조직 문화·분위기	18
6. 성소수자 의제 및 의사결정 제도	20
7. 성소수자 당원 지원 제도	24
8. 제도 개선 방안	26
9. 소속 당적을 유지할 의향	32

10. 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 종합 정리	33
11. 정치적 효능감 및 참여 경험	34
12. 응답자 개인정보	36
비당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44
1. 과거 입당 경험	45
2. 정당에 대한 입장	46
3. 정치 성향 및 정치 참여 경험	50
4. 정치적 효능감 및 참여 경험	53
5. 응답자 개인정보	55
[부록]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당원·비당원 비교	62

요약

요약

본 조사는 성소수자 당원(114명)과 비당원(120명)의 경험을 분석하여, 한국 정당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 정당 및 입법부에 성소수자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정치 결사체인 정당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다양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정당 활동의 현황과 성소수자 당원들의 목소리

- 성소수자 당원들은 단순한 투표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음.
- **정당 활동 양상:** 민주당 당원은 '의사결정 참여(투표)'에 집중하는 반면, 진보당은 '거리 활동', 정의당은 '지역/학습/위원회' 등 고른 참여를 보임.
- **당내 존중 체감도:** 성소수자 정체성이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은 진보적 정당들에 비해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민주당 '대체로 그렇다' 이상 약 39% vs 타 정당 평균 70% 이상)
- **가장 바라는 제도적 개선:** '차별·혐오 발언에 대한 명확한 대응 규칙'(18.4%)과 '의사결정 구조 내 당사자 참여 보장'(10.7%)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힘.

- **행정적 장벽:** 입당 시 성별 기입(남/녀)이나 가족 정보 기입 방식에서 배제감을 느끼며, '그 외 성별' 선택지 신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 진보적 정당의 당원들이 소속 정당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 민주당 당원들은 '더 이상의 퇴보는 안된다'는 바람을 갖고 있음.

비당원을 당원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

- 비당원들의 정당 지지 분포는 정의당(42.5%), 민주당(29.2%), 진보당(14.2%) 순이며, 이들의 입당을 유도하기 위해선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임.
- **입당 고려 조건:** 비당원들이 정당 가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안전한 분위기'(21.1%)와 '명확한 대응 규칙(20.1%)'임.
- **참여 장벽 해소:** 입당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경제적 여유 부족(37.5%)'이며,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15.8%)도 주요 원인임.
- **효능감의 연결:** 비당원은 정치가 일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높지만(92.5%), 자신의 정치적 이해 및 참여 능력에 대한 신뢰는 당원보다 18%p 가량 낮음.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표본		성소수자 중 정당인 114명, 비정당인 120명
표본추출		스노우볼링 방식
조사방법		설문지 활용한 오프라인 설문
조사일시		2026년 2월 1일(일) ~ 2월 22일(일) (22일간)
조사기관		프라이드온더파티

당원 대상 설문조사

당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총 1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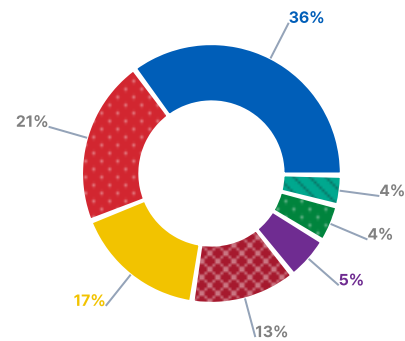
객관식 설문에 포함된 '기타(직접 작성)' 선택지나 '서술식 문항'의 내용은 객관식 문항 분석 이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음

CONTENTS

01	1. 가입 정당	06	6. 성소수자 의제 및 의사결정 제도
02	2. 정당 가입 고려 단계	07	7. 성소수자 당원 지원 제도
03	3. 입당 신청 단계	08	8. 제도 개선 방안
04	4. 정당 활동	09	9. 소속 당적 유지 의향
05	5. 조직 문화·분위기		

1-1. 현재 소속 정당

*정당 배치 순서는 설문조사 참가자 순서



● 더불어민주당
 ● 진보당
 ● 정의당
 ● 노동당
 ● 여성당
 ● 녹색당
 ● 기본소득당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총합
현재 소속 정당	41	24	19	15	6	5	4	114
비율(%)	36.96	21.05	16.67	13.16	5.26	4.39	3.5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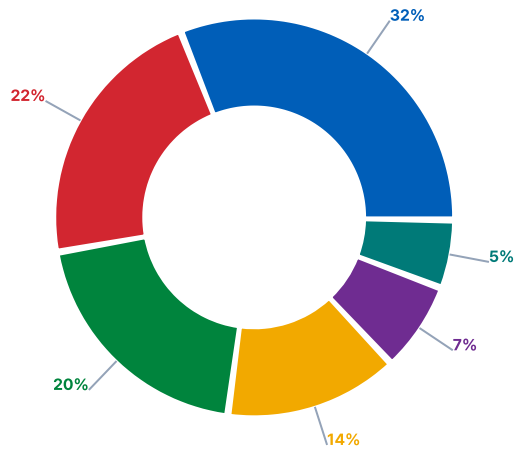
1-2. (현재 소속 정당 외의) 과거 소속 정당

- 총 114명의 현재 정당 소속 응답자 중 26명(약 23%)이 현 정당과는 다른 정당에 소속된 경험이 있으며, 진보당원과 노동당원이 다양한 前 정당 경험이 있는 특징이 있음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현재 정당		41	24	19	15	6	5	4	114
과거 정당 경험 有		5	8	5	4	1	1	2	26
더불어민주당		—	3	2	1	—	—	1	7
진보당		1	—	—	2	—	—	—	3
정의당		3	2	—	1	1	1	—	8
노동당		—	1	1	—	—	—	1	3
여성의당		1	—	—	—	—	—	—	1
녹색당		—	1	1	2	—	—	—	4
기본소득당		—	1	—	—	—	—	—	1
기타		—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변혁노동자당	—	—	—	—

2. 정당 가입 고려 단계 (복수 응답)

2-1. 정당 가입 결정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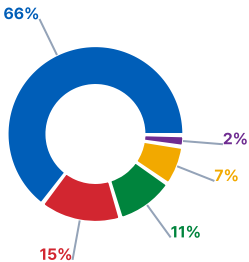


- 기타(서술식)
-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서
- 선거·정치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 성소수자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 싶어서
- 지인(가족·친구·활동가)의 권유
- 지지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응원하고 싶어서

순위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1	선거·정치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18	7	4	4	1	1	1	36	31.6
2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서	3	11	2	3	2	2	2	25	21.9
3	지지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응원하고 싶어서	13	1	5	1	2	1	0	23	20.2
4	성소수자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 싶어서	3	1	5	6	0	0	1	16	14.0
5	지인(가족·친구·활동가)의 권유	3	2	2	0	0	1	0	8	7.00
6	기타(서술식)	1	2	1	1	1	0	0	6	5.3
—	합계	41	24	19	15	6	5	4	114	100.0

2-2. 정당 선택의 기준

- 기타: '법안이나 정치활동에서 거대 정당의 역할 기대', '여성의제에 대한 입장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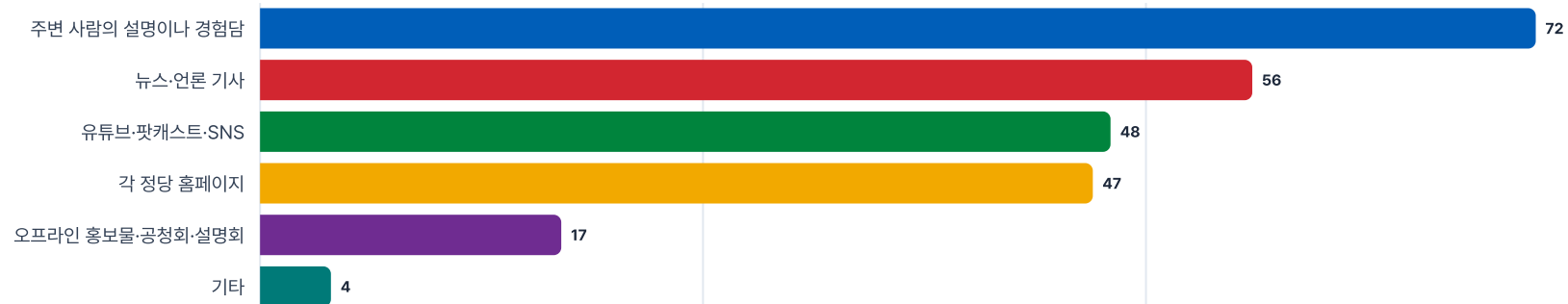
● 기타 ● 나와 가까운 사람들(친구, 동료, 가족)의 의견 ● 정당의 이념·정책·공약 ● 정당의 이미지·분위기 ●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순위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1	정당의 이념·정책·공약	21	14	14	13	5	4	4	75	65.8
2	나와 가까운 사람들(친구, 동료, 가족)의 의견	8	7	0	2	0	0	0	17	14.9
3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8	1	3	0	0	0	0	12	10.5
4	정당의 이미지·분위기	3	2	2	0	0	1	0	8	7.0
5	기타	1	0	0	0	1	0	0	2	1.8
—	합계	41	24	19	15	6	5	4	114	100.0

2. 정당 가입 고려 단계 (복수 응답)

2-3. 정당 관련 정보 출처

2-3-1. 모든 응답자 대상 (복수 응답)



순위	정보 획득 경로	빈도	비율 (%)
1	주변 사람의 설명이나 경험담	72	63.2
2	뉴스·언론 기사	56	49.1
3	유튜브·팟캐스트·SNS	48	42.1
4	각 정당 홈페이지	47	41.2
5	오프라인 홍보물·공청회·설명회	17	14.9
6	기타	4	3.5

2. 정당 가입 고려 단계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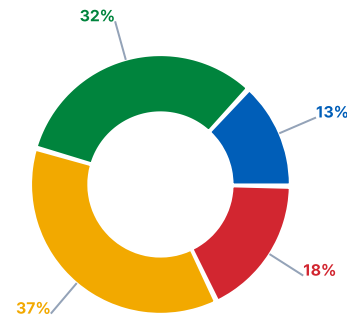
2-3. 정당 관련 정보 출처

2-3-2. 정당별 (복수 응답)

* 괄호 안은 각 정당 응답자 수 대비 비율(%)이며, 복수 응답 문항으로 세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구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주변 사람의 설명	26(63.4)	16(66.7)	8(42.1)	11(73.3)	4(66.7)	4(80.0)	3(75.0)
뉴스·언론 기사	26(63.4)	8(33.3)	10(52.6)	6(40.0)	2(33.3)	1(20.0)	3(75.0)
유튜브·SNS	19(46.3)	9(37.5)	9(47.4)	5(33.3)	3(50.0)	2(40.0)	1(25.0)
각 정당 홈페이지	19(46.3)	7(29.2)	6(31.6)	9(60.0)	2(33.3)	3(60.0)	1(25.0)
오프라인 홍보물·공청회·설명회	5(12.2)	3(12.5)	3(15.8)	1(6.7)	2(33.3)	1(20.0)	2(50.0)
기타	1(2.4)	2(8.3)	0(0.0)	1(6.7)	0(0.0)	0(0.0)	0(0.0)

2-4. 다른 성소수자들의 경험과 이야기가 입당 결정에 미친 영향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13	4	3	0	0	0	0	20	17.5
별로 그렇지 않다	22	8	4	4	1	1	2	42	36.8
대체로 그렇다	5	12	8	6	4	2	0	37	32.5
매우 그렇다	1	0	4	5	1	2	2	15	13.2
합계	41	24	19	15	6	5	4	114	100.0

3. 입당 신청 단계

3-1. 성별 체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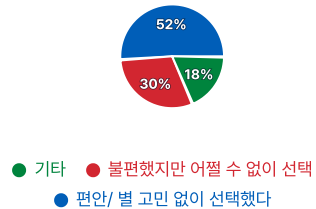
T014

- 그 외 진보적 정당들(여성의당 제외)은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고, 입당 시기 및 방식에 따라 응답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음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남녀 체크란만 존재	35	10	5	6	6	3	1	66	57.9
다른 선택지도 있음	6	14	14	9	0	2	3	48	42.1
합계	41	24	19	15	6	5	4	114	100.0

3-1-1. (3-1. 질문에서) '남녀 체크란만 존재'했을 때의 감정

T015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편안/ 별 고민 없이 선택했다	18	7	2	1	5	0	1	34	51.5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	12	2	2	3	0	1	0	20	30.3
기타	5	1	1	2	1	2	0	12	18.2
합계	35	10	5	6	6	3	1	66	100.0

3-1-2. (3-1. 질문에서) '다른 선택지도 있음' 상황에서 성별 항목을 선택한 방식

T016

- '기타' 의견으로는 진보당과 정의당의 경우 주로 별도 성별 기입란이 없었음'으로 응답했고, 그 외 '기억나지 않음', '일단 한 성으로 선택한 후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하였음'으로 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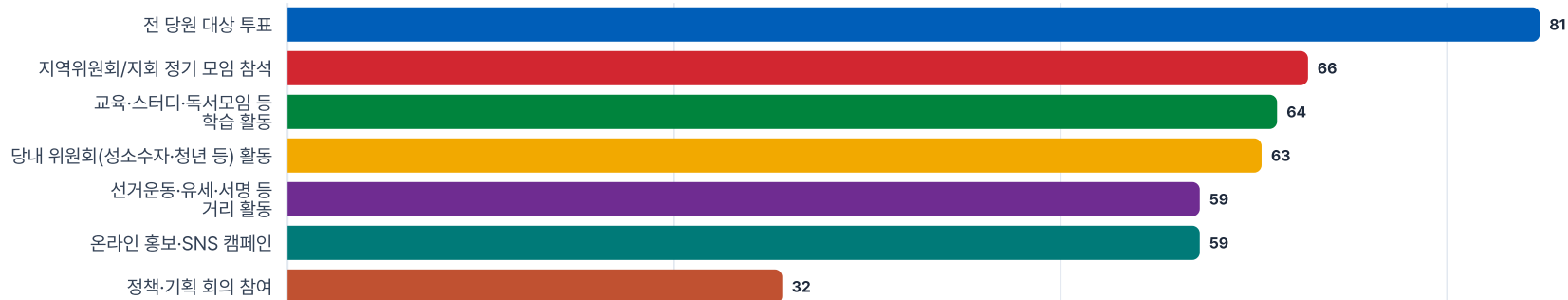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주민등록상의 성별 그대로 선택했다	0	13	4	0	-	0	0	17	35.4
내가 스스로 사용하는 성별 정체성에 맞춰 선택했다	6	0	2	8	-	2	0	18	37.5
기타	0	1	8	1	-	0	3	13	27.1
합계	6	14	14	9	-	2	3	48	100.0

4. 정당 활동

4-1. 지금까지 경험해 본 당의 공식 활동

4-1-1. 모든 응답자 대상 (복수 응답)

* 복수 응답이라 합계가 100%를 초과함



순위	활동 항목	빈도	비율 (%)
1	전 당원 대상 투표	81	71.1
2	지역위원회/지회 정기 모임 참석	66	57.9
3	교육·스터디·독서모임 등 학습 활동	64	56.1
4	당내 위원회(성소수자·청년 등) 활동	63	55.3
5	선거운동·유세·서명 등 거리 활동	59	51.8
6	온라인 홍보·SNS 캠페인	59	51.8
7	정책·기획 회의 참여	32	28.1

4. 정당 활동
4-1. 지금까지 경험해 본 당의 공식 활동

4-1-2. 지금까지 경험해 본 당의 공식 활동 (정당별)

* 괄호 안은 각 정당 응답자 수 대비 비율(%)이며, 복수 응답 문항으로 세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 더불어민주당: 투표 참여가 다른 활동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의사결정 참여' 중심의 활동 양상을 보임
- 진보당: 유일하게 거리 유세/활동(18명)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현장 중심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남
- 정의당: 지역 모임(15명), 학습(14명), 위원회(14명), 투표(14명) 등 모든 활동 영역에 걸쳐 당원들이 매우 고르게 참여하고 있음
- 노동당 & 기본소득당: 당내 부문별 위원회 활동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여성당: 당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스터디와 온라인 홍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전 당원 대상 투표	34(82.9)	16(66.7)	14(73.7)	10(66.7)	2(33.3)	3(60.0)	2(50.0)
지역위원회/지회 정기 모임	16(39.0)	12(50.0)	15(78.9)	12(80.0)	3(50.0)	5(100.0)	3(75.0)
당내 위원회 활동	15(36.6)	11(45.8)	14(73.7)	14(93.3)	1(16.7)	4(80.0)	4(100.0)
온라인 홍보·SNS 캠페인	16(39.0)	13(54.2)	11(57.9)	10(66.7)	3(50.0)	4(80.0)	2(50.0)
교육·스터디·독서모임	13(31.7)	17(70.8)	14(73.7)	11(73.3)	3(50.0)	4(80.0)	3(75.0)
선거운동·유세·거리 활동	12(29.3)	18(75.0)	13(68.4)	9(60.0)	2(33.3)	3(60.0)	2(50.0)
정책·기획 회의 참여	8(19.5)	5(20.8)	7(36.8)	6(40.0)	0(0.0)	3(60.0)	3(75.0)

4. 정당 활동

4-2. 현재 당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활동 (응답자 모두)

* 복수 응답이라 합계가 100%를 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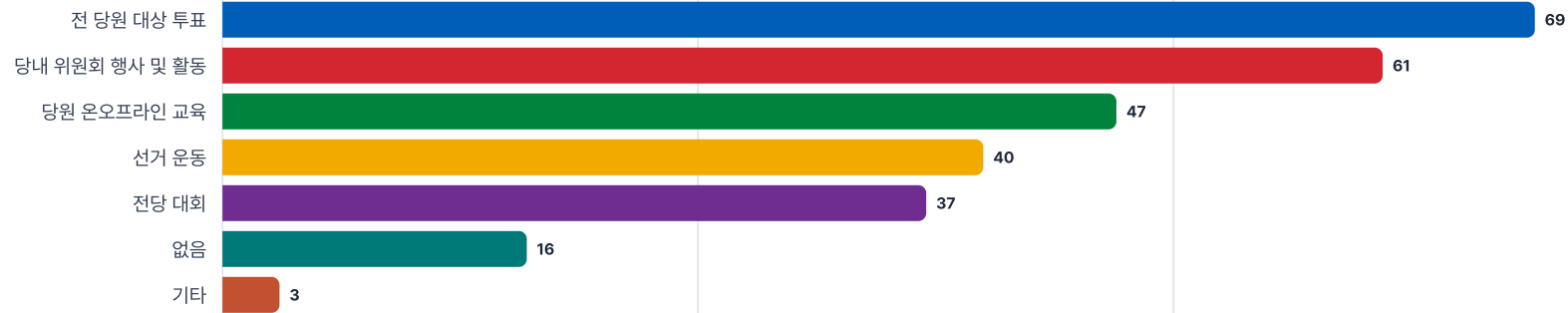
* 당내 다양한 역할에 대한 활동을 합침

순위	활동 항목	빈도	비율 (%)
1	SNS ·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52	45.6
2	지역 / 광역 활동	46	40.4
3	비공식 당원 모임	44	38.6
4	활동 없음	23	20.2
5	중앙당 활동	18	15.8
6	당 실무자 (당직자, 보좌진 등)	18*	15.8
7	특정 정치인 지지 모임	6	5.3
8	기타 (대의원, 운영위원, 의견그룹 등)	5	4.4

4. 정당 활동

4-3. 최근 1년간 참여한 당의 공식 활동 (응답자 모두)

* 복수 응답이라 합계가 100%를 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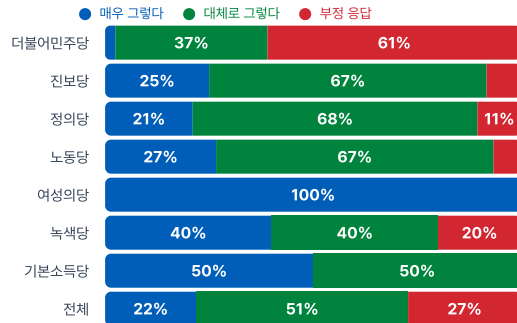
순위	활동 항목	빈도	비율 (%)
1	전 당원 대상 투표	69	25.3
2	당내 위원회 행사 및 활동	61	22.3
3	당원 온오프라인 교육	47	17.2
4	선거 운동	40	14.7
5	전당 대회	37	13.6
6	없음	16	5.9
7	기타	3	1.1

5. 조직 문화·분위기

5-1. 정당 안에서 성적체성과 경험이 존중받는 느낌

T021

- 민주당과 그 외 진보적 정당들과 선명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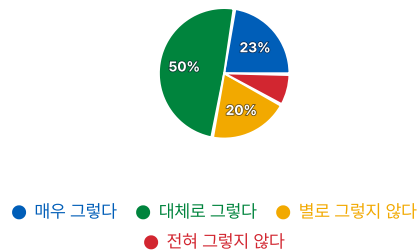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8	1	0	0	0	0	0	9	7.9
별로 그렇지 않다	17	1	2	1	0	1	0	22	19.3
대체로 그렇다	15	16	13	10	0	2	2	58	50.9
매우 그렇다	1	6	4	4	6	2	2	25	21.9
합계	41	24	19	15	6	5	4	114	100.0

5-2. 성소수자 관련 활동이나 다양한 성적체성에 대한 대화에서 느끼는 편안함

T022

* 민주당과 여성의당에서 전체 응답자 수와 차이가 나는 것은 응답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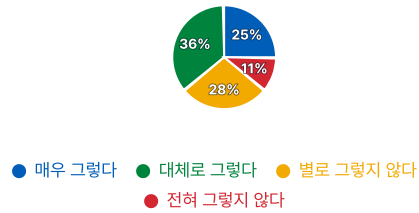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8	0	0	0	0	0	0	8	7.6
별로 그렇지 않다	15	4	1	0	0	1	0	21	19.8
대체로 그렇다	9	16	13	10	2	1	2	53	50.0
매우 그렇다	2	4	5	5	3	3	2	24	22.6
합계	34	24	19	15	5	5	4	106	100.0

5. 조직 문화·분위기

5-3. 당내에서 다른 성소수자 당원과 연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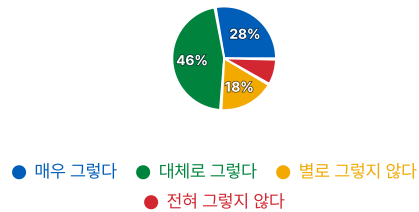
T023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8	2	2	0	0	0	0	12	10.5
별로 그렇지 않다	16	6	7	1	0	1	1	32	28.1
대체로 그렇다	12	13	7	5	1	1	2	41	36.00
매우 그렇다	5	3	3	9	5	3	1	29	25.4
합계	41	24	19	15	6	5	4	114	100.0

5-4.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당의 노력

T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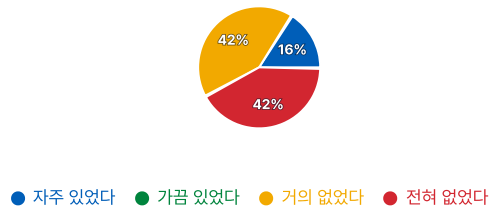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8	1	0	0	0	0	0	9	7.9
별로 그렇지 않다	16	2	0	1	1	0	0	20	17.5
대체로 그렇다	15	14	12	6	0	3	3	53	46.5
매우 그렇다	2	7	7	8	5	2	1	32	28.1
합계	41	24	19	15	6	5	4	114	100.0

5-5. 성정체성 때문에 나의 의견이나 기여가 존중받지 못한 경험

T025

- 전체 응답자 수와 차이가 나는 것은 응답하지 않은 경우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자주 있었다	3	0	4	1	0	0	0	8	16.0
가끔 있었다	0	0	0	0	0	0	0	0	0.0
거의 없었다	7	2	3	5	0	3	1	21	42.0
전혀 없었다	4	6	3	3	3	1	1	21	42.0
합계	14	8	10	9	3	4	2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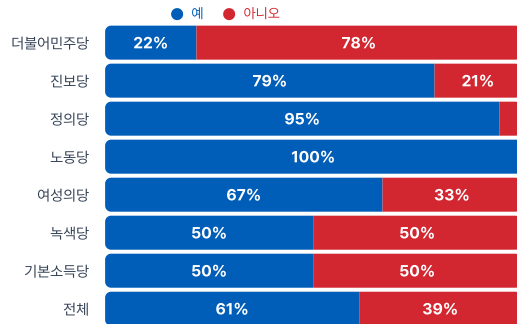
6. 성소수자 의제 및 의사결정 제도

6-1. 당의 공식 활동

6-1-1. 성소수자 의제를 논의한 경험

T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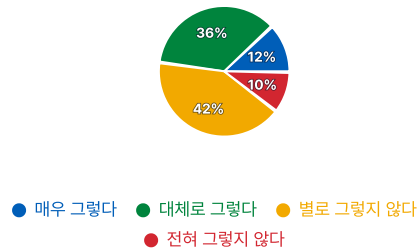
- 민주당과 그 외 진보적 정당들과 선명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예	9	19	18	15	4	2	2	69	61.1
아니오	32	5	1	0	2	2	2	44	38.9
합계	41	24	19	15	6	4	4	113	100.0

6-1-2. 정책결정과정에서 성소수자 의제의 충분함

T027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4	0	1	0	0	0	0	5	10.0
별로 그렇지 않다	9	4	3	3	0	1	1	21	42.0
대체로 그렇다	1	4	3	4	2	3	1	18	36.0
매우 그렇다	0	0	3	2	1	0	0	6	12.0
합계	14	8	10	9	3	4	2	50	100.0

6. 성소수자 의제 및 의사결정 제도

6-1. 당의 공식 활동

6-1-3. '나와 내가 포함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이야기'임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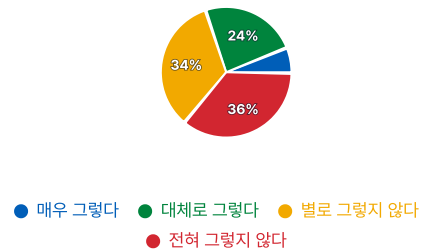
T028

- 민주당과 그 외 진보적 정당들과 선명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자주 있었다	2	2	4	8	4	0	0	20	17.6
가끔 있었다	10	15	14	6	1	3	3	52	45.6
거의 없었다	15	4	1	1	1	2	0	24	21.1
전혀 없었다	14	3	0	0	0	0	1	18	15.8
합계	41	24	19	15	6	5	4	114	100.0

6-1-4. 성소수자 정체성 때문에 오히려 성소수자 의제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

T029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3	4	1	4	2	3	1	18	36.0
별로 그렇지 않다	3	3	5	3	1	1	1	17	34.0
대체로 그렇다	7	1	3	1	0	0	0	12	24.0
매우 그렇다	1	0	1	1	0	0	0	3	6.0
합계	14	8	10	9	3	4	2	50	100.0

6. 성소수자 의제 및 의사결정 제도

6-2.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

6-2-1.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의사를 표명할 통로 존재

T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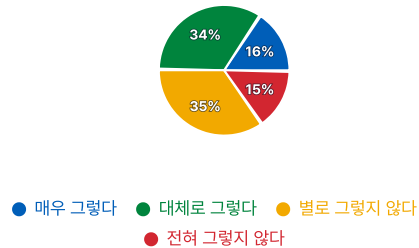
- 민주당과 그 외 진보적 정당들과 선명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8	1	3	0	0	0	0	12	10.5
별로 그렇지 않다	26	10	5	0	1	2	1	45	39.5
대체로 그렇다	7	10	10	10	3	2	2	44	38.6
매우 그렇다	0	3	1	5	2	1	1	13	11.4
합계	41	24	19	15	6	5	4	114	100.0

6-2-2. 성소수자 관련 정책 결정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T031

- 민주당과 그 외 진보적 정당들과 선명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12	2	3	0	0	0	0	17	14.9
별로 그렇지 않다	19	6	10	2	1	0	2	40	35.1
대체로 그렇다	9	12	5	6	3	3	1	39	34.2
매우 그렇다	1	4	1	7	2	2	1	18	15.8
합계	41	24	19	15	6	5	4	114	100.0

6. 성소수자 의제 및 의사결정 제도

6-2.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

6-2-3. 의사결정이 성소수자에게 불리하다고 느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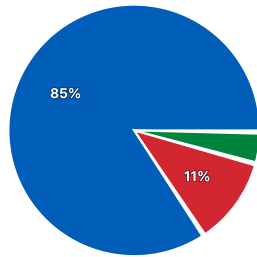
T032

- 민주당과 그 외 진보적 정당들과 선명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자주 있었다	4	0	2	0	0	0	0	6	12.0
가끔 있었다	9	2	3	5	0	1	1	21	42.0
거의 없었다	0	6	4	4	1	2	0	17	34.0
전혀 없었다	1	0	1	0	2	1	1	6	12.0
합계	14	8	10	9	3	4	2	50	100.0

6-2-3-1. (6-2-3.에서 '자주 느낀다'와 '가끔 느낀다'를 선택한 응답자) 성소수자에게 불리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원인

T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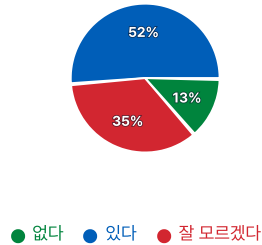
-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개입한 채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 성소수자의 존재가 무의식적으로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 성소수자의 존재가 의도적으로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성소수자의 존재가 무의식적으로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10	2	4	5	-	1	1	23	85.2
성소수자의 존재가 의도적으로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2	0	1	0	-	0	0	3	11.1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개입한 채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1	0	0	0	-	0	0	1	3.7
합계	13	2	5	5	-	1	1	27	100.0

7. 성소수자 당원 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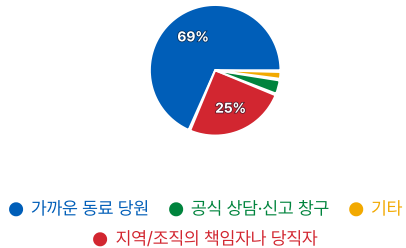
7-1. 정당 활동 중 성정체성과 관련한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제도 T034

- 민주당과 그 외 진보적 정당들과 선명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있다	10	16	10	12	4	4	3	59	51.8
잘 모르겠다	19	6	8	3	2	1	1	40	35.1
없다	12	2	1	0	0	0	0	15	13.2
합계	41	24	19	15	6	5	4	114	100.0

7-1-1. (7-1.에서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 도움을 요청한 대상 T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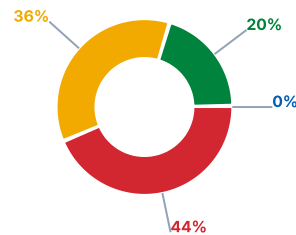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가까운 동료 당원	8	14	4	8	4	2	1	41	69.5
지역/조직의 책임자나 당직자	2	2	4	3	0	2	2	15	25.4
공식 상담·신고 창구	0	0	2	0	0	0	0	2	3.4
기타	0	0	0	1	0	0	0	1	1.7
합계	10	16	10	12	4	4	3	59	100.0

7. 성소수자 당원 지원 제도

7-2. 당내 지원·교육·멘토링 등의 기회 접근에 있어 성소수자로서 장벽이나 불평등을 느낀 경험

- 그 외, 당 활동에 대한 효능감 질문들*에서는 선택지별, 정당별 차이 및 함의를 찾지 못함; 당의 규모, 당에서의 개인적 포지션 등의 차이가 큰 듯함

*질문: '내가 당이나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나요?', '당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감이 커졌나요?', '나는 당원으로서 이 당의 전반적 정책 결정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중요한 안건이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중요한 대화나 결정의 자리에서 "내가 빠져 있다"거나 "초대받지 못했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요?' 등



● 자주 느낀다 ● 가끔 느낀다 ● 거의 느끼지 않는다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비율 (%)
자주 느낀다	0	0	0	0	0	0	0	0	0.0
가끔 느낀다	4	1	3	1	0	0	1	10	20.0
거의 느끼지 않는다	7	2	3	3	1	2	0	18	36.0
전혀 느끼지 않는다	3	5	4	5	2	2	1	22	44.0
합계	14	8	10	9	3	4	2	50	100.0

8.제도 개선 방안

8-1. 시급한 지원 (복수응답)

8-1-1. 모든 응답자

순위	항목	빈도	비율 (%)
1	차별·혐오 발언 명확한 대응 규칙	69	18.4
2	성소수자 및 소수자 관련 정책자문단 위원회 설치	40	10.7
3	조직 내 평등·포용 관련 정기 교육 의무화	40	10.7
4	의사결정 구조에서 당사자 참여 보장	38	10.2
5	당 지도부 및 주요 직책의 다양성 목표 설정 및 평가제도 도입	37	9.9
6	성소수자 젠더 다양성 관련 공식 포럼 토론회 정례화	35	9.4
—	청년·여성·성소수자 등 교차적 소수자 리더십 육성 지원	35	9.4
7	안전한 내부 교육과 학습 공간	30	8.0
8	정당 후보자 공천 및 인사 과정 다양성 기준 반영	30	8.0
9	성소수자 당사자 전용 상담 지원 창구	18	4.8
10	기타	2	0.6

8. 제도 개선 방안

8-1. 시급한 지원 (복수응답)

8-1-2. 정당별

* 괄호 안은 각 정당 응답자 수 대비 비율(%)이며, 복수 응답 문항으로 세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빈도
차별·혐오 발언 명확한 대응 규칙	28(68.3)	14(58.3)	12(63.2)	10(66.7)	2(33.3)	3(60.0)	0(0.0)	69
성소수자 및 소수자 관련 정책자문단 위원회 설치	22(53.7)	9(37.5)	2(10.5)	3(20.0)	0(0.0)	2(40.0)	2(50.0)	40
조직 내 평등·포용 관련 정기 교육의 의무화	15(36.6)	10(41.7)	6(31.6)	4(26.7)	0(0.0)	3(60.0)	2(50.0)	40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당사자 참여 보장	15(36.6)	5(20.8)	7(36.8)	4(26.7)	5(83.3)	1(20.0)	1(25.0)	38
당 지도부/주요 직책 다양성 목표 설정 및 평가	12(29.3)	8(33.3)	5(26.3)	7(46.7)	2(33.3)	2(40.0)	1(25.0)	37
성소수자·젠더 이슈 논의 공식 포럼/토론회 정례화	12(29.3)	7(29.2)	9(47.4)	3(20.0)	0(0.0)	2(40.0)	2(50.0)	35
청년·여성·성소수자 등 교차적 소수자 리더십 육성 지원	8(19.5)	10(41.7)	7(36.8)	2(13.3)	2(33.3)	4(80.0)	2(50.0)	35
정당 후보자 공천 및 인사 시 다양성 기준 반영	7(17.1)	7(29.2)	5(26.3)	5(33.3)	1(16.7)	3(60.0)	2(50.0)	30
안전한 내부 교육과 학습 공간	10(24.4)	9(37.5)	2(10.5)	5(33.3)	4(66.7)	0(0.0)	0(0.0)	30
성소수자 당사자 전용 상담·지원 창구	10(24.4)	4(16.7)	2(10.5)	0(0.0)	0(0.0)	2(40.0)	0(0.0)	18
기타 (직접 기입 등)	0(0.0)	0(0.0)	0(0.0)	1(6.7)	0(0.0)	0(0.0)	0(0.0)	2

8. 제도 개선 방안

8-2. 성소수자 친화적 정당을 만들기 위해 당직자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태도 역할

8-2-1. 모든 응답자

순위	항목	빈도	비율 (%)
1	실수했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하기	62	17.8
2	소수자 이슈를 선거용이 아니라 장기적 의제로 다루는 태도	58	16.6
3	성소수자 및 다양성 관련 지속적 학습과 자기점검	54	15.5
4	소수자 당사자 목소리 직접 들으려는 노력	53	15.2
5	포용적, 성평등한 의사결정 절차 유지	36	10.3
6	정당의 공식 입장이나 홍보 등에서 다양성 드러내기	34	9.7
7	일상적 소통 피드백 채널	20	5.7
8	위기 상황에서 먼저 책임지고 설명하기	17	4.9
9	차별 경험을 공유한 구성원 존중, 비공개 원칙 유지	13	3.7
10	기타	2	0.6
합계	—	349	100.0

8. 제도 개선 방안

8-2. 성소수자 친화적 정당을 만들기 위해 당직자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태도 역할

8-2-2. 정당별

* 괄호 안은 각 정당 응답자 수 대비 비율(%)이며, 복수 응답 문항으로 세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위기 상황에서 먼저 책임지고 설명하기	3(7.3)	4(16.7)	3(15.8)	4(26.7)	2(33.3)	0(0.0)	1(25.0)
소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는 노력	23(56.1)	12(50.0)	5(26.3)	4(26.7)	3(50.0)	3(60.0)	3(75.0)
실수했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하기	16(39.0)	16(66.7)	10(52.6)	14(93.3)	3(50.0)	2(40.0)	2(50.0)
일상적인 소통·피드백 채널 열어두기	8(19.5)	2(8.3)	3(15.8)	1(6.7)	4(66.7)	1(20.0)	4(100.0)
성소수자 및 다양성 이슈에 대한 지속적 학습과 자기점검	25(61.0)	12(50.0)	6(31.6)	7(46.7)	1(16.7)	2(40.0)	2(50.0)
포용적·성평등한 의사결정 절차 유지 (회의 방식 등)	13(31.7)	8(33.3)	8(42.1)	3(20.0)	0(0.0)	2(40.0)	2(50.0)
소수자 이슈를 선거용이 아닌 장기적 의제로 다루는 태도	21(51.2)	11(45.8)	12(63.2)	7(46.7)	1(16.7)	4(80.0)	1(25.0)
차별 경험을 공유한 구성원 존중 및 비공개 원칙 유지	6(14.6)	2(8.3)	1(5.3)	3(20.0)	0(0.0)	0(0.0)	0(0.0)
공식 입장이나 홍보물에서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8(19.5)	10(41.7)	6(31.6)	2(13.3)	1(16.7)	5(100.0)	3(75.0)

8. 제도 개선 방안

8-3. 비성소수자 당원에게 기대하는 점

8-3-1. 모든 응답자 (복수 응답)

복수 응답 문항으로 세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순위	항목	빈도	비율(%)
1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함께 만드는 것	94	82.5
2	성소수자 차별적인 상황에서 함께 문제제기 하고 대응하는 것	86	75.4
3	회의·토론에서 소수자 의견을 먼저 묻고 들어 주는 것	31	27.2
4	계엄·탄핵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함께 대응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	29	25.4
5	기타	2	1.8

8. 제도 개선 방안

8-3. 비성소수자 당원에게 기대하는 점

8-3-2. 정당별 (복수 응답)

* 괄호 안은 각 정당 응답자 수 대비 비율(%)이며, 복수 응답 문항으로 세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조성	37(90.2)	15(62.5)	18(94.7)	13(86.7)	3(50.0)	4(80.0)	4(100.0)
차별 상황에서 함께 문제제기 및 대응	30(73.2)	19(79.2)	14(73.7)	14(93.3)	2(33.3)	4(80.0)	3(75.0)
회의·토론에서 소수자 의견 먼저 경청	9(22.0)	8(33.3)	4(21.1)	7(46.7)	1(16.7)	1(20.0)	1(25.0)
위기 상황(계엄·탄핵 등) 공동 대응 및 기록	12(29.3)	6(25.0)	4(21.1)	5(33.3)	1(16.7)	1(20.0)	0(0.0)
기타 의견 및 개인 소견	0(0.0)	0(0.0)	1(5.3)	1(6.7)	0(0.0)	0(0.0)	0(0.0)

9. 소속 당의 당적을 유지할 의향

9-1. 모든 응답자

T043

—	빈도	비율 (%)
매우 그렇다	57	50.0
대체로 그렇다	47	41.2
별로 그렇지 않다	8	7.0
전혀 그렇지 않다	2	1.8
합계	114	100.0

9-2. 정당별

T044

* 괄호 안은 각 정당 응답자 수 대비 비율(%)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매우 그렇다	18(43.9)	14(58.3)	5(26.3)	8(53.3)	6(100.0)	5(100.0)	1(25.0)
대체로 그렇다	19(46.3)	8(33.3)	10(52.6)	7(46.7)	0(0.0)	0(0.0)	3(75.0)
별로 그렇지 않다	3(7.3)	2(8.3)	3(15.8)	0(0.0)	0(0.0)	0(0.0)	0(0.0)
전혀 그렇지 않다	1(2.4)	0(0.0)	1(5.3)	0(0.0)	0(0.0)	0(0.0)	0(0.0)
합계	41(100.0)	24(100.0)	19(100.0)	15(100.0)	6(100.0)	5(100.0)	4(100.0)

10. 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 종합 정리

진보적 정당은 +하고자 하는 의지와 가능성에 대한 희망 vs. 민주당은 -를 막기 위한 노력							
	—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입당 시스템 및 기타 행정	—	—	활동 목표, 관심 정책 기재란 신설 희망 → '개인'으로서 존재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별 정체성 반영 요구	가입 시 성별 미가입 가입 가능하나, 이 후 공지 및 기타 행정업무에서 남녀의 이분법적 접근의 한계가 있음	본인인증 기반 성별 강제 가입 가족 구성원 정보 기입의 다양성 결여 → '그 외 성별' or '원하는 성별' or '밝 히고 싶지 않음' 등 다양한 선택지 희망	
심리적 안전감		성소수자 당원이 '특이하지 않은' 보편 적 존재로 인식됨	워크숍 등에서 성중립 속소가 마련되 어 있음 성차별적 호칭 지양 등 실천적 문화가 정착되어 있음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적 배움의 자세 와 존중 있음 문제가 있어도 사후 개선이 원활함	오래된 활동가들의 지지와 배울 의지 가 있는 당원들	청년층 중심 높음 변화하는 당의 모습 과 선배들의 수용적 태도에 신뢰 성별 지칭 표현 하나에도 조심하는 모 습 보임	당원끼리 무례한 질문이 있을 때에도 함께 연대하여 방어해 주는 동료들이 있음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인지 못함 성소수자, 여성의 삶 외면/ 관련 정책 무관심(차금법, 생활동반자법) 선거철 보수화에 큰 상처 포비아 정치인의 존재 단, 당내 성소수자 비공식 모임은 편안 함
활동 중 장벽 및 위험		아웃팅 리스크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선택권 인지 및 주의하기	성중립 시설이 가능한 하나, '표준'이 아닌 '매번 요청'해야 함 아웃팅 대응 매뉴얼 필요 명확한 징계와 구제절차 필요	'퀴어 활동가' 프레임에 갇히기도 함 소외감 및 농담의 소재가 되기도 함	성소수자 분회 설치를 반대하는 당원 이 존재하는 등 개인별, 지역별 온도 차 있음 성소소수자 의제에 대한 진정한 소통 보다는 표면적으로 다루짐	일상적 활동에서 정체성을 반복 설명 해야 하는 피로감	혐오 세력의 존재, 포비아 당원이 무서 움 당내 혐오 발언 주류 당원의 소수자 목소리 억압 여성 및 성소수자 소외
조직 및 정책 역량		당론으로 성소수자 정책 추진 중 차별/혐오 반대 원칙 명확	성소수자위원회의 활발한 활동 성중립 가이드라인 제도와 추진 중 지역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음	성소수자위원회의 선명성 및 정책 생 산 역량 아쉬움	성소수자 조직 재건 시급 지역 소모임 및 소통 창구 확대 필요	성소수자 당원의 적극 활동을 위한 정 책 의제 필요	성차별·성비위 위반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징계 필요 아웃팅 등에 대한 공식적·절차적 대응 필요 비대면 소통창구 필요 성소수자위원회 공식 출범 절실 비례대표 할당 및 차금법 추진 요구 선거기간에 보수단체 만나지 않기
활동 지속 동기		안전한 공동체 경험 및 당론에 대한 신 뢰	당을 친화적으로 바꿔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의지 타 정당 대비 높은 성인지 능력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 와 배우려는 의지	당의 변화 발전 가능성 및 청년 당원들 의 높은 관심 타 정당에 비해 높은 성인지 능력 성장하는 정당	성소수자와 동료 시민으로서의 연대	수권정당의 변화가 가져올 파급력과 대안 부재 적어도 퇴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성소수자 정책 이외의 다른 정책에 대 한 지지
*여성의당: 여성 및 성소수자 의제에 섬세하게 접근, 치열하게 투쟁							

11. 정치적 효능감 및 참여 경험

11-1. "정치는 내 일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T046

응답	빈도	비율 (%)
매우 그렇다	68	59.60
대체로 그렇다	44	38.60
별로 그렇지 않다	2	1.8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합계	114	100.0

11-2.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T047

응답	빈도	비율 (%)
매우 그렇다	48	42.10
대체로 그렇다	58	50.90
별로 그렇지 않다	8	7.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합계	114	100.0

11. 정치적 효능감 및 참여 경험

11-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048

응답	빈도	비율 (%)
매우 그렇다	45	39.50
대체로 그렇다	58	50.90
별로 그렇지 않다	9	7.90
전혀 그렇지 않다	2	1.80
합계	114	100.0

11-4.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T049

응답	빈도	비율 (%)
매우 그렇다	42	36.80
대체로 그렇다	55	48.20
별로 그렇지 않다	15	13.20
전혀 그렇지 않다	2	1.80
합계	114	100.0

12. 응답자 개인 정보

12-1. 연령대

T050

	빈도	비율 (%)
10대	2	1.8
20대	69	60.5
30대	32	28.1
40대	9	7.9
50대 이상	2	1.8
합계	114	100.0

12-2. 정치적 성향

T051

	빈도	비율 (%)
매우 진보	37	32.5
다소 진보	65	57.0
중도	9	7.9
다소 보수	1	.9
잘 모르겠다	2	1.8
합계	114	100.0

12. 응답자 개인 정보

12-3. 종교

T052

	—	빈도	비율 (%)
없음		82	71.9
개신교		12	10.5
가톨릭		16	14.0
불교		4	3.5
합계		114	100.0

12-4. 최종 학력

T053

	—	빈도	비율 (%)
중졸 이하		2	1.8
고졸		16	14.0
대학 재학중		29	25.4
대학졸업		50	43.9
대학원 재학 이상		17	14.9
합계		114	100.0

12-5. 경제 활동

	빈도	비율 (%)
경영/관리직(대표, 부장 등)	8	7.0
무직/퇴직	20	17.5
전문직(의사, 변호사, 회계사, 프리랜서 등)	6	5.3
사무직/기술직(사무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	22	19.3
판매/서비스직(판매원, 서비스원, 요리사 등)	6	5.3
기능/작업/단순노무직(기능공, 조립원 등)	4	3.5
자영업자(상업, 종업원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택시 운전 등)	3	2.6
학생(대학생/고등학생 등)	30	26.3
기타	15	13.15
합계	114	100.0

12-6. 거주지

	빈도	비율 (%)
서울특별시	65	57.0
부산광역시	2	1.8
대구광역시	1	.9
인천광역시	9	7.9
광주광역시	2	1.8
대전광역시	2	1.8
울산광역시	2	1.8
경기도	24	21.1
충청북도	2	1.8
충청남도	1	.9
전북특별자치도	1	.9
전라남도	2	1.8
경상남도	1	.9
합계	114	100.0

12-7. 소득 수준

	빈도	비율 (%)
100만 원 미만	54	47.4
100~200만 원 미만	20	17.5
200~300만 원 미만	24	21.1
300~400만 원 미만	8	7.0
400~500만 원 미만	2	1.8
500만 원 이상	6	5.3
합계	114	100.0

12. 응답자 개인 정보

12-8. 성별

12-8-1. 출생 시 지정 성별 (법적 성별)

T057

	빈도	비율 (%)
남성으로 지정	42	36.8
여성으로 지정	72	63.2
합계	114	100.0

12-8-2. 스스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정체성 (복수 응답)

T058

* "1, 3, 4"와 같은 응답을 여성(1), 논바이너리(3), 젠더퀴어(4) 각각에 1회씩 할당하여 합산

* 기타(스스로 작성): 게이,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젠더리스, 데미걸-논바이너리, 에코젠더, 젠더 플렉스 등

	빈도	비율 (%)
여성	55	48.2
남성	29	25.4
논바이너리	29	25.4
젠더퀴어	16	14
아직 탐색 중	10	8.8
스스로 적고 싶다	5	4.4

12. 응답자 개인 정보

12-8. 성별

12-8-3. 성적 지향 (복수 응답)

*복수 응답이라 합계가 100%를 초과함
* 기타(스스로 작성): 남성애하는 회색무성애, 데미로맨틱 팬섹슈얼, 데미섹슈얼, 에이로맨틱, 여러 성별에게 끌림, 다자연애, 퀴어, 성애적 끌림은 느끼지 않으나 친밀한 관계, 가족관계는 성별에 관계가 없고, 재생산을 가정 시엔 이성을 대상으로 함 등

	빈도	비율 (%)
이성에게 끌림	8	7
동성에게 끌림	40	35.1
여러 성별에게 끌림	55	48.2
아무에게도 끌리지 않음	19	16.7
잘 모르겠다 / 아직 탐색 중	3	2.6
스스로 적고 싶다	8	7

12-9. 커밍아웃 경험 (복수 응답)

*복수 응답이라 합계가 100%를 초과함

	빈도	비율 (%)
가족	63	55.3
친구	100	87.7
직장 등 동료	35	30.7
지인 등	48	42.1
시민단체	41	36
나를 아는 모든 사람	11	9.6
아직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3	2.6

비당원 대상 설문조사

비당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총 120명)

CONTENTS

- | | | | |
|----|---------------------|----|--------------------|
| 01 | 1. 과거 입당 경험 | 04 | 4. 정치적 효능감 및 참여 경험 |
| 02 | 2. 정당에 대한 입장 | 05 | 5. 응답자 개인정보 |
| 03 | 3. 정치 성향 및 정치 참여 경험 | | |

1.과거 입당 경험

1-1. 유무

T061

	—	빈도	비율 (%)
있음		26	21.7
없음		94	78.3
합계		120	100.0

1-2. 과거 소속 정당

T062

1인이 여러 당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총 3건

	—	빈도	비율 (%)
더불어민주당		2	10.5
진보당		-	0.0
정의당		3	15.8
노동당		2	10.5
여성의당		2	10.5
녹색당		5	26.3
기본소득당		1	5.3
민주노동당		3	15.8
기타 (진보신당)		1	5.3
합계		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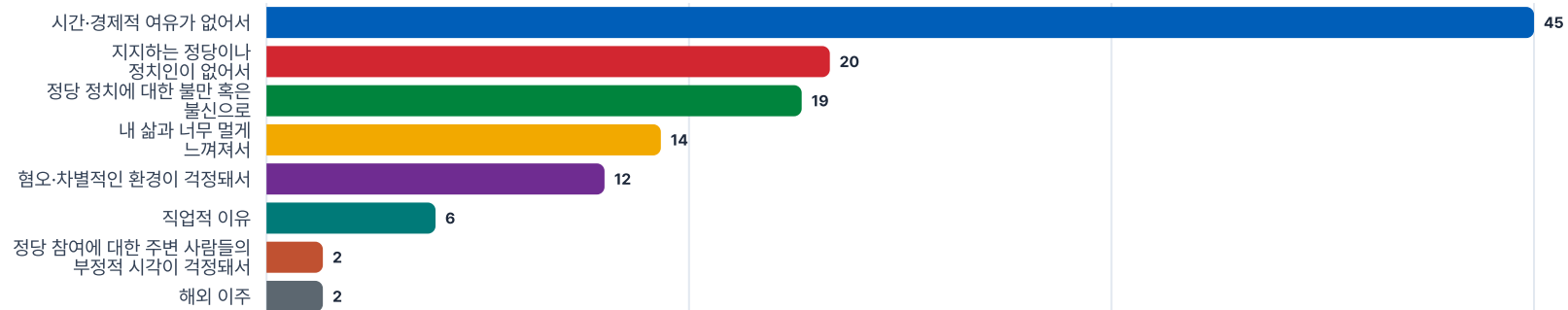
2. 정당에 대한 입장

2-1. 정당 참여(입당·당 활동)를 생각해 본 경험

	—	빈도	비율 (%)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다		18	15
가볍게 상상해 본 적은 있다		56	46.7
거의/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46	38.3
합계		1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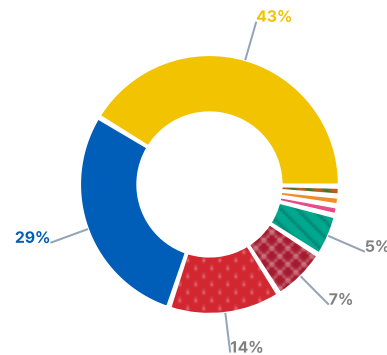
2. 정당에 대한 입장

2-2. 정당 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순위	이유	빈도	비율 (%)
1	시간·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45	37.5
2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없어서	20	16.7
3	정당 정치에 대한 불만 혹은 불신으로	19	15.8
4	내 삶과 너무 멀게 느껴져서	14	11.7
5	혐오·차별적인 환경이 걱정돼서	12	10
6	직업적 이유	6	4.9
7	정당 참여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시각이 걱정돼서	2	1.7
8	해외 이주	2	1.7
—	합계	120	100.0

2-3. 현재 지지하는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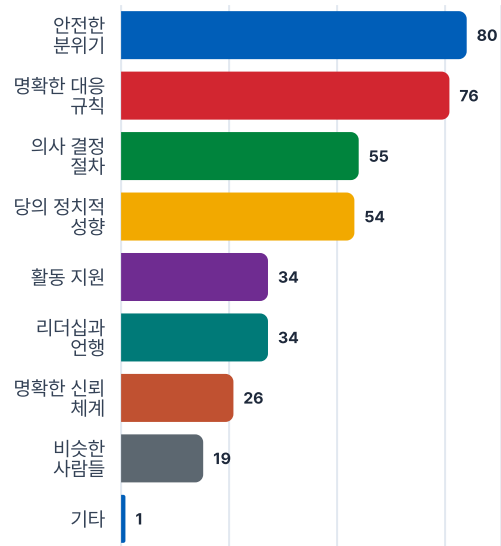


●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 진보당
 ● 노동당
 ● 기본소득당
 ● 국민의힘
 ● 개혁신당
 ● 사회민주당

순위	정당	빈도	비율 (%)
1	정의당	51	42.5
2	더불어민주당	35	29.2
3	진보당	17	14.2
4	노동당	8	6.7
5	기본소득당	6	5
6	국민의힘	1	0.8
7	개혁신당	1	0.8
8	사회민주당	1	0.8
—	합계	120	100.0

2. 정당에 대한 입장

2-4. 정당에 들어가게 된다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3가지 (복수 응답)



*복수 응답이라 합계가 100%를 초과함

순위	조건	빈도	비율 (%)
1	성소수자 당사자가 활동함에 있어 안전하다고 느끼는 분위기	80	21.1
2	당 내외의 혐오·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명확한 대응 규칙	76	20.1
3	성소수자 당사자의 의견이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절차적 장치	55	14.5
4	성소수자 친화적 당의 정치적 성향	54	14.2
5	다양성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예산, 공간, 네트워크 등)	34	9.0
6	당직자 및 지도부의 리더십과 책임감 있는 언행	34	9.0
7	사적 정보(정체성 등)가 보호된다는 명확한 신뢰 체계	26	6.9
8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	19	5.0
9	기타	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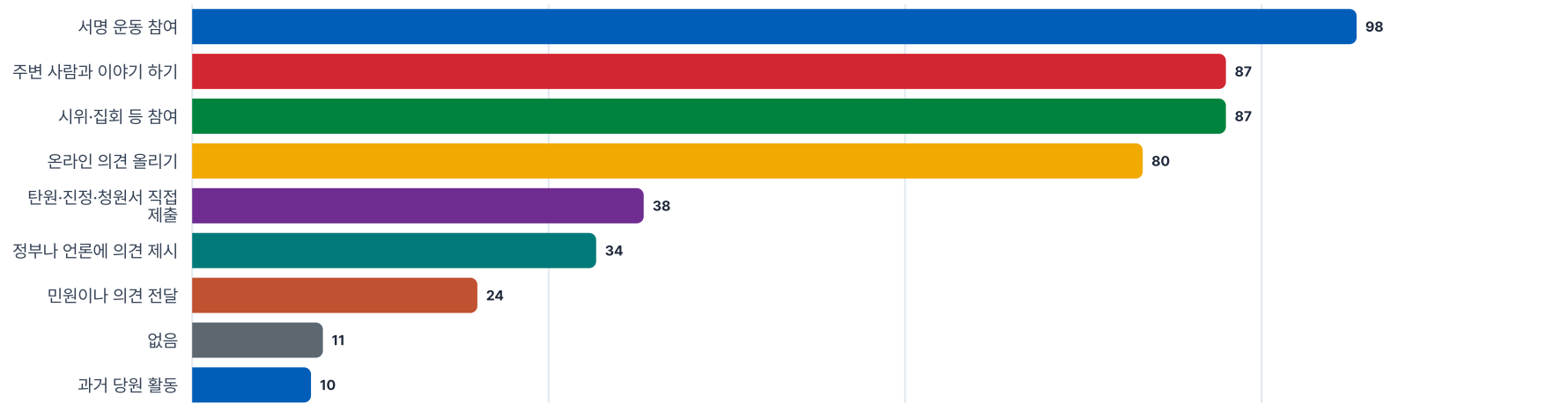
3. 정치 성향 및 정치 참여 경험

3-1. 정치적 지향

	—	빈도	비율 (%)
매우 진보		32	26.7
다소 진보		70	58.3
중도		13	10.8
다소 보수		2	1.7
매우 보수		3	2.5
합계		120	100.0

3-2. 정치 참여 경험 (복수 선택)

*복수 응답이라 합계가 100%를 초과함



순위	참여 경험	빈도	비율 (%)
1	서명 운동 참여	98	20.9
2	주변 사람과 이야기 하기	87	18.6
3	시위·집회 등 참여	87	18.6
4	온라인 의견 올리기	80	17.1
5	탄원·진정·청원서 직접 제출	38	8.1
6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	34	7.2
7	민원이나 의견 전달	24	5.1
8	없음	11	2.3
9	과거 당원 활동	10	2.1

3. 정치 성향 및 정치 참여 경험

3-3. 사회단체에 대하여 활동 정도

	노동조합/직업조합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 (반상회 등 주민조직)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소속된 적이 없다	99	82.5	64	53.3	100	83.3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5	3.3	13	10.8	8	6.7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한다	9	7.5	5	4.2	2	1.7
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4	3.3	18	14.2	7	5.0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3	2.5	20	16.7	3	2.5
합계	120	100.0	120	100.0	120	100.0

4. 정치적 효능감 및 참여 경험

4-1. "정치는 내 일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T070

	—	빈도	비율 (%)
매우 그렇다		72	60
대체로 그렇다		39	32.5
별로 그렇지 않다		8	6.7
전혀 그렇지 않다		1	0.8
합계		120	100.0

4-2.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T071

	—	빈도	비율 (%)
매우 그렇다		36	30
대체로 그렇다		54	45
별로 그렇지 않다		27	22.5
전혀 그렇지 않다		3	2.5
합계		120	100.0

4. 정치적 효능감 및 참여 경험

4-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072

—	빈도	비율 (%)
매우 그렇다	46	38.3
대체로 그렇다	56	46.7
별로 그렇지 않다	14	11.7
전혀 그렇지 않다	4	3.3
합계	120	100.0

4-4.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T073

—	빈도	비율 (%)
매우 그렇다	26	21.7
대체로 그렇다	59	49.2
별로 그렇지 않다	33	27.5
전혀 그렇지 않다	2	1.7
합계	120	100.0

5. 응답자 개인정보

5-1. 출생연도

T074

	빈도	비율 (%)
10대	3	2.5
20대	53	44.2
30대	50	41.7
40대	13	10.8
50대이상	1	.8
합계	120	100.0

5-2. 출생 시 지정 성별

T075

	빈도	비율 (%)
여성으로 지정	98	81.7
남성으로 지정	22	18.3
합계	120	100.0

5-3. 성정체성

* ‘스스로 적고 싶다’ 의견 - 레즈비언, 데미걸-에이젠더, 바이, 퀴어, 지정 성별은 여성이고 패싱되는 성별도 여성이지만, 스스로 남성이라고 느끼며 남성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빈도	비율 (%)
여성	78	54.5
논바이너리	21	14.7
남성	18	12.6
젠더퀴어	14	9.8
아직 탐색 중이다	10	7
스스로 적고 싶다	2	1.4
합계	143	100.0

5. 응답자 개인정보

5-4. 커밍아웃 경험

* 기타 - LGBTQIA+ 커뮤니티/ 동성결혼식 과정에서 웨딩업계 관계자 및 일부 공무원에게 커밍아웃
* 아웃팅 경험 -학교 구성원, 낯선 사람 등

	빈도	비율 (%)
가족	71	24.3
친구	108	37
직장 동료	40	13.7
시민단체	34	11.6
기타	18	6.2
나를 아는 모든 사람	9	3.1
아직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8	2.7
정당	4	1.4
합계	292	100.0

5. 응답자 개인정보

5-5. 학력

	빈도	비율 (%)
고졸	9	7.5
대학 재학중	26	21.7
대학졸업	59	49.2
대학원 재학 이상	26	21.7
합계	120	100.0

5. 응답자 개인정보

5-6. 현재 하고 있는 일(취업 상태)

*기타: 공무원/활동가/대학 강사/예술인/운동선수/프리랜서/유튜브 크리에이터/활동가/ 군복무 등

	빈도	비율 (%)
사무직/기술직(사무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	31	25.8
학생(대학생/고등학생 등)	29	24.2
기타	20	16.7
무직/퇴직	15	12.5
전문직(의사, 변호사, 회계사, 프리랜서 등)	14	11.7
판매/서비스직(판매원, 서비스원, 요리사 등)	5	4.2
경영/관리직(대표, 부장 등)	3	2.5
기능/작업/단순노무직(기능공, 조립원 등)	1	.8
자영업자(상업, 종업원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택시 운전 등)	1	.8
전업주부	1	.8
합계	120	100.0

5. 응답자 개인정보

5-7. 현재 거주 지역

	—	빈도	비율 (%)
서울특별시		65	54.2
부산광역시		2	1.7
대구광역시		3	2.5
인천광역시		6	5.0
광주광역시		1	.8
대전광역시		1	.8
울산광역시		1	.8
경기도		31	25.8
충청남도		5	4.2
전북특별자치도		2	1.7
전라남도		1	.8
경상남도		1	.8
제주특별자치도		1	.8
합계		120	100.0

5. 응답자 개인정보

5-8. 월평균 개인 소득

	빈도	비율 (%)
100만 원 미만	42	35.0
100~200만 원 미만	17	14.2
200~300만 원 미만	32	26.7
300~400만 원 미만	14	11.7
400~500만 원 미만	9	7.5
500만 원 이상	6	5.0
합계	120	100.0

당원·비당원 비교

[부록-1] 정치적 효능감 네 가지 질문 (당원·비당원 비교)

CONTENTS

01 1. 정치에 대한 기대감

02 2. 내적 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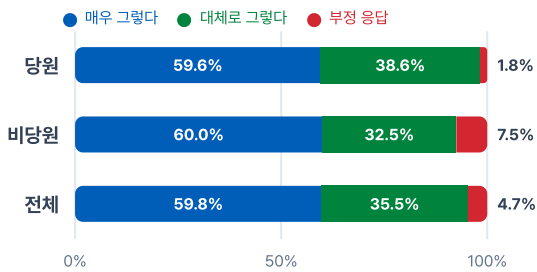
03 3. 외적 효능감

04 4. 정치적 관용도

1. 정치에 대한 기대감: “정치는 내 일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T082

- '매우 그렇다'는 비중은 비슷하지만, 비당원의 경우 정치가 일상을 바꿀 수 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당원보다 약 4배 가량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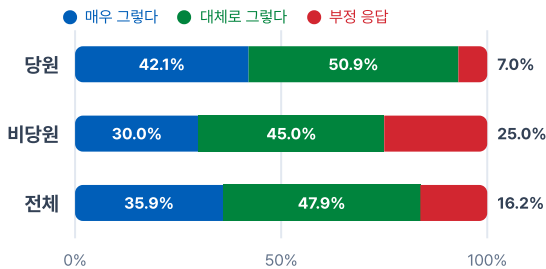


그룹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긍정 합계	부정 응답
당원	59.60%	38.60%	98.20%	1.80%
비당원	60.00%	32.50%	92.50%	7.50%

2. 내적 효능감: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능력이 있다”

T083

-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입니다. 당원은 93%가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신뢰하는 반면, 비당원은 4명 중 1명(25%)이 정치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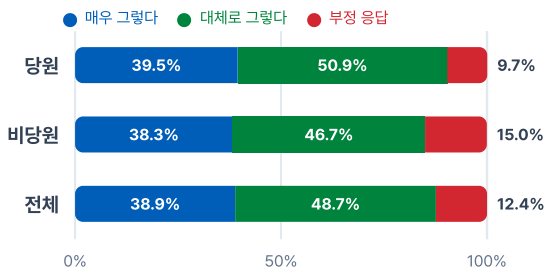


그룹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긍정 합계	부정 응답
당원	42.10%	50.90%	93.00%	7.00%
비당원	30.00%	45.00%	75.00%	25.00%

3. 외적 효능감: “나는 선거/캠페인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084

- 자신의 행동이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 역시 당원이 높습니다. 다만, 비당원도 85%라는 높은 긍정률을 보여, 한국 시민들의 전반적인 참여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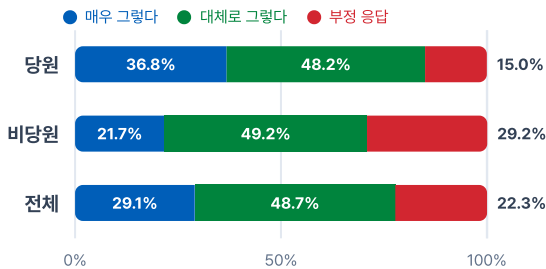


그룹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긍정 합계	부정 응답
당원	39.50%	50.90%	90.40%	9.70%
비당원	38.30%	46.70%	85.00%	15.00%

4. 정치적 관용도: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T085

- 당원은 타인에 대한 포용력이 매우 높다고 답한 비율이 비당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비당원의 경우 약 30%가 타인을 포용하기 어렵다고 답해 당원(15%)과 큰 격차를 보임



그룹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긍정 합계	부정 응답
당원	36.80%	48.20%	85.00%	15.00%
비당원	21.70%	49.20%	70.90%	29.20%

성소수자 정당정치 참여 및 권리보장을 위한 설문조사

성소수자 정당정치 참여 및 권리보장을 위한 설문조사

본 설문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정당 내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조사입니다.

이를 위해 당원 및 비당원 성소수자들의 요구와 경험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성소수자 운동이 정당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번 설문은 성소수자 당사자가 직접 정당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의지를 표출하고 또한, 정치적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성소수자 정치참여의 현실을 이해하고, 정당 내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공개되지 않습니다.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과 의견을 나누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문기간 | 2026.2.1-2026.2.22

자문 | 민주연구원 류이현 연구위원

주관 | 프라이드온더파티

후원 | (재)다음세대재단

문의 | prideontheparty@gmail.com